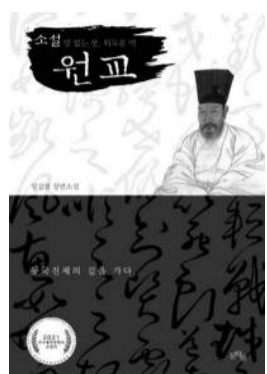


# “‘동국진체’ 원교 이광사 예술혼 그리고 싶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정강철 작가 ‘소설 원교’ 펴내  
2년여 취재 3년간 창작  
원교 관련 소설로는 첫 작품

동국진체(東國眞體)로 당대 서단을 품었던 원교 이광사(1705~1777)는 비극적 운명을 고독한 예술혼으로 개척했던 서예가다.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변방으로 밀려났지만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열었던 반전의 인물이다.



해남 대흥사와 구례 천은사 대웅전에는 원교 글씨가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강진 백련사에도 그의 신필(神筆)이 숨을 쉬고 있다. 고창 선운사와 부안 내소사에서도 그의 글씨를 만날 수 있다.

원교 이광사의 삶과 예술세계를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1989) 출신 정강철 소설가는 최근 ‘소설 원교’ (문학들)를 발간했다.

평소 소리 소문 없이 작업을 하는 정 작가는 진중하면서도 반듯하다. 이런저런 행사에 얼굴을 내밀기보다 묵묵히 일을 하는 편이라, 한동안 소식이 없는 것이 ‘곧 창작집을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그에게서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의 침묵 이유를 알 수 있는 창작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묵직한 장편, 그것도 단 한번 소설로 다루지 않았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이었다.

“서예라는 세계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전문성과 난해함 때문에 서예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서예를 소재로 삼은 소설쓰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추사 김정희에 대한 소설은 몇 번 보았지만, 추사보다 앞선 인물인 원교 이광사에 대한 소설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교 이광사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소설을 쓰겠다



정강철 소설가 (정강철 제공)

는 의욕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정 작가는 소설을 쓰기 위해 2년여 취재를 했고 3년 간의 창작에 매달렸다. 직접적으로 원교를 모티브로 장편을 구상했던 것은 작가 역시 서예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길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고(故) 학정 이돈흥 서예가 문하에서 서예를 배우고 익힌” 경험이 직접적인 창작의 계기가 됐다.

그는 “추사보다 저평가돼 있는 원교를 소설로 써서 역사 위에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에 했었다”며 “막상 5년 전부터는 다른 소설은 쓰지 않고 원교만 붙잡고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막상 역사 속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참고문헌이 거의 없었다”는 말에서 저간의 어려움이 짐작됐다.

“‘강화학파의 서예가 이광사’ (이진선, 한길사 2011) 한 권만

이 이광사의 생애를 학술적으로 접근한 유일한 논문이었어요. 그의 인물에 대한 평전이나 서적은 찾을 수 없었구요. 물론 신문이나 잡지에서 다루었던 원교 얘기는 단순한 일화를 바탕으로 한 가십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인간 이광사를 심층적으로 다룬 자료로는 부족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같은 자료의 빈약과 조명되지 못한 ‘위인’의 삶은 소설가에게는 강렬한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기제다.

원교는 유년시절부터 폐족이라는 아픔을 이겨내며 백하 운송의 문하에서 글씨를 배웠다. ‘뜻이 앞선 연후에 붓을 잡아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새기며 서예에 정진했다. 그러나 백부와 관련된 연좌로 함경도에까지 유배를 당한다. 그러다 다시 1762년 절해고도인 완도 신지도로 이배(移配)된다.

정 작가는 신지도에 유폐된 이광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원교가 15년간 신지도에 머물렀기에 분명히 창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신지대교가 놓이기 전부터 그곳을 방문했지만 초라한 적거지와 안내한 한 장 없었던” 현실이 늘 안타까웠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다리로 놓이고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 기대가 된다.

“동국진체의 길을 가다”라는 부제처럼 소설은 고통의 삶 속에서도 예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원교의 일생을 그려낸다. 임종 직전 원교가 가물가물한 의식을 끌어내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작품은, 주류에서 멀어졌지만 부와 무관한 채 유배객의 인생을 살았던 원교를 조명한다. 오롯이 글씨에 바친 생애는 흡사 ‘달아 홀린 풍당뽕, 독필 같았다’는 표현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김영삼 평론가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한 예술가’의 인고의 정신과 묵향의 정신이 가득 배어 있다”며 “수많은 자료와 고증을 거쳐 소설적 상상력을 융합해야만 했을 글쓰기의 과정을 생각할 때 이 ‘한 예술가’가 원교인지 정강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평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정 작가는 조금씩 쓰다가 멈춘 소설을 쓸 예정이라고 했다.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에서 우연히 만나 맺어진 연인들의 이야기를 코로나가 끝나면 현지를 방문해 취재하고 보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 작가는 문화예술위 3000만원 공모 당선작 장편 ‘블라인드 스텝’, 소설집 ‘우양한 그늘’을 펴냈으며 ‘바다가 우는 시간’으로 목포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재즈·일렉트로닉·락... 음악 장르 허물다

블랙스트링 20일 광주문예회관 콘서트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블랙스트링 10주년 콘서트 Road of Oasis’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블랙스트링(사진)은 한국 전통음악에 기반을 두고 재즈, 일렉트로닉, 락, 아방가르드 음악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현대적이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담긴 음악을 선보이는 그룹이다. 거문고 명인 허운정을 주축으로 독창적인 음악 색깔로 주목받는 기타리스트 오정수, 전방위 대금 연주자 이아람, 그리고 역동성과 섬세함을 겸비한 타악 연주자이자 소리꾼인 황민왕이 함께한다.

블랙스트링의 창단 10주년 기념 투어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1집 ‘Mask Dance’의 대표곡과 두번째 앨범 ‘Karma’의 수록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깊고 영원한 업의 세계를 표현한 2집 앨범의 타이틀 곡 ‘Karma’, 남아메리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음악적 열정을 표현한 ‘Surena’, 한국의 바다에서 불리는 다양한 민요들을 모아 블랙스트링의 색깔로 재해석한 ‘Song of the Sea’ 등 총 11곡을 만날 수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시민연극제 극단 인연 극단상·연출상

지난 5일부터 빛고을극작소 공연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연극제가 13일 막을 내린 가운데 서울 극단 인연이 극단상을 수상했다. 연출상은 인연의 ‘3: about 3’의 김순태와 광주 극단 우연의 ‘사랑, 소묘’의 오철균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극단상과 연출상을 차지한 극단 인연은 1980년 5·18을 전후해 대학 동아리의 MT 준비 과정과 진압군의 조준사격이 일어날 때의 갈등, 그리고 현재의 문제 등을 그렸다. 오랜 두 연인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짜임새 있는 연출력으로 형상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연기상은 각 극단별로 정거장의 한연자, 인연의 정유진, 담장이의 김희경, 한울타리의 정승채, 행복드림의 채경석, 화사한마을극단의 최은화, 우연의 유다운, 도담도담의 장희경 등이 수상했다.

한편 이번 연극제는 서울, 경기 광명, 나주, 광주 등 8개 극단이 참여해 뛰어난 연기력과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예년과는 달리 젊은 층의 연극인들이 참여해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공연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은 유튜브 ‘광주서구문화원’을 검색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여성영화제 ‘권 작품상’ 허지은·이경호 감독 ‘행인’

12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 14일 폐막했다.

14일 열린 폐막식에서는 ‘권 단편경선’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올해 권 단편경선에는 작년보다 3배가량 많은 총 526편이 출품됐으며 예심을 통해 12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다. 본선 심사는 ‘프랑스 여자’의 김희정 감독,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김란희 상임대표, 11회 권 단편경선 작품상 수상작 ‘슬래’의 김도연 감독이 맡았다. 관객상은 지난 달 모집한 관객 심사단이 직접 뽑았다.

권 작품상으로는 허지은, 이경호 감독의 ‘행인’이, 권 특별상으로는 전재연 감독의 ‘퇴직금’, 권 관객상은 남순아 감독의 ‘해피피 이혼파티’가 선정됐다. ‘행인’은 한국 사회와 영화 현장에서 소외된 이방인과 단역배우의 이야기이며 ‘퇴직금’은 동대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연대를 다룬 작품이다. ‘해피피 이혼파티’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어머니에 대한 딸의 마음을 담아낸다.



권 작품상을 수상한 허지은, 이경호 감독의 ‘행인’

한편 12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지난 9~14일 광주극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등에서 열렸으며 총 54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또 변영주·홍성은 감독 등 총 35명의 감독들이 광주를 찾아 관객들과 여성과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2024년까지 10회 지역순회전

국립현대미술관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의 지역순회전을 향후 3년간 약 10회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내년 상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주최하는 기증 1주년 전시 이후 지역미술관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 순회전은 내년 2회, 2023년 4~6회, 2024년 3회 등 10회 안팎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 1488점의 작가명·작품명·제작연도·재료 및 기법 등을 연구해 내년 말까지 작품 등록을 마칠 방침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고화질 촬영·설명문 작성 작업 등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월부터 작품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기증작품은 2027년 목표로 설립되는 ‘이건희 기증관’에 인계하고 이후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 및 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연립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귀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